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성과금 제도와 청렴한 공직자

민주주의 국가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란 말이 있다.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며, 평등은 같은 조건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시작의 출발점에서 평등은 있으나 결과에서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달리기경기에서 출발점을 고르게 하여 평등으로 출발하지만, 결과는 노력에 따라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평등하게 똑같이 상을 준다 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다. 같은 여건에서도 노력에 따라 부자가 생기고 가난뱅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유발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직장에서 성과금 제도를 시행하여 창의력을 발휘해 이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월말

이나 연말에 성과금을 주어 성취 의욕의 자극을 주고 있다. 그런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며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성과금 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는 국가사회에 관련된 일을 하고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수인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약용 선

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밝혔다. 공직자는 청렴(淸廉)한 자세로 근무해야 하며, 청렴이란 부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창의력(創意力)을 발휘해 이익을 창출해 내 근무하는 자세라고 했다. 우리가 청렴하면 부정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맡은 일에 무사 안일하고 시간만 보내며 월급 받는 공직자는 청렴한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어 모든 공직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 이익을 창출하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청렴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다. 해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한 해를 넘기는 일이 많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공직자는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의 사회에서도 성과금 제도를 시행하여 창의력을 발휘해 이익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공직자는 응분의 성과금을 주어 타의 추종이 있게 해야 한다. 새해가 되어 공직자의 이동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업무가 새롭게 바뀌었다. 새로 맡은 업무에 대해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며,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인정 받는 공직자로서 모범이 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게 업무 추진을 하면 주민과 국민은 그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부정을 한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되게 한다. 공직자 사회에서 결과에 대한 평등을 주장해서도 안 되며, 그러한 직장 분위기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인데 소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하는 일에 집념을 가지고 일을 근면·성실하게 해낸다. 편히 살기 위해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소다. '사레긴 밭을 언제 다 갈려느냐' 하지만 소는 농부 뜻에 따라 밭을 다 갈아 낸다. 공직자가 소처럼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청렴한 자세를 몸에 익혀, 올해는 모든 공직자가 성과를 받도록 했으면 한다. 지난해 삼성그룹에서 연말 성과금을 100%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각종 기업에서도 삼성처럼 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such as 1577-1366, 1399, 182, etc.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www.i-honam.com), phone numbers (062) 229-6000, and address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후미등 고장방치 차량 사고위험 2배 크다

아직도 초야나 동이를 무렵 새벽 시간대는 질퍽같이 어둡다. 여기에 올해 겨울 잦은 눈,비에 후미등이나 번호판이 더럽혀진 차량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기상여건하에서 자가 운전자라면 한번쯤 어두운 밤길을 운행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앞선 주행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아찔한 경험을 한번쯤 하였을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야 전방에 분명 아무런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바로 앞에 진행중인 화물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사고는 바로 이렇듯 한순간 방심과 안전 불감증에서부터 일어난다.

필자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차량 후미등과 반사경이 심하게 퇴색되어 있거나 먼지로 뒤덮인채 운행중인 화물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후미등이 아예 커지지 않았거나 아예 파손된채 너털 너털 거리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해 시커멓게 도색되어 있는 차량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던데도 갑자기 마주치게 된 시커먼 화물 차량과의 추돌사고는 피할수 없게 된다. 이렇듯 차량 후방에 설치된 안전 등화가 정비가 미흡할 경우 그만큼 내 차량의 위치를 알리기 어렵게 되

어 후미차량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비로서 차량을 인식해 뒤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후미등이 오염된채 운행하는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뒤차는 빨간 불빛의 시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후미등이 정상 작동하는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따라가는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주간 2.13초, 야간 2.08초였으나 후미등이 망가진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4.03초로 거의 배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자동차가 시속 80km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20m 이상을 더

주행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하니 가히 사고는 한 순간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야간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후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운전자 특성상 야간에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앞서 진행중인 차량 후미등이나 반사경으로 상대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화물차량 운전자는 수시로 차량 후미등과 반사판을 세척해 나와 타인의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야간 운전 시에는 조명등이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교통 안전은 사소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